

# “전두환 일해재단 비리와 판박이”...“카더라식 폭로 그만”

## 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난타전

22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부금 모금 과정의 특혜 의혹을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에 대해 “기름장어처럼 말한다”고 몰아세웠고, 황 총리 역시 격양된 어조로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야권의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1000%가 넘고, 한진해운을 살펴보면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미르재단에 10억원을 냈다. 그런 상황에서 모금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한 뒤, “미르재단의 출범식에 참석한 면세점 사업그룹인 SK하이닉스 롯데도 각각 68억원, 28억원을 냈다”고 기업들의 모금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내시와 환관이 왕의 귀를 막을 때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영의정이 돼야 목갑이 비서처럼 발언해야 되겠다”라며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 총리는 “기름장어가 아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며 “의원도 범조인이 아닌가.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지, 의심으로만 뭐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광운 의원은 미르 재단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 핵심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5공 일해재단 비리와 판박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제가 이 정부 와서 3년 7개월째 되는데, 비선 실세라는 실체를 본 일이 없다”며 “지금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가 왜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한다”

“의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송영길-황교안 치열한 설전

곡·과장돼 퍼지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같은 당 이인주 의원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대해 “두 재단은 장립총회 회의록, 회의 장소는 물론 사무실 집기까지 동일하다”며 “변종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한 뒤 “전경련이 두 재단에 15일 동안 무려 738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권 실세의 외압이 없이 가능한 일이라 보느냐”고 따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등을 둘러싼 야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공세에 대해 “무책임한 폭로 정치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기업모금은 전경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성태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 이번 논란을 “짜리시 수준의 의혹 제기”로 규정한 뒤 “이런 ‘카더라식’의 폭로에 민생은 실종되고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성엽 교문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22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서 중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국민의당 송기석, 도종환. 이날 교문위는 미르·K스포츠재단 국정감사 중인 채택 여부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취소됐다. /연합뉴스

## 김재수 해임안·사드 입장 선회...국민의당 우클릭?

더민주 공조 파기 유감 표명에 사과

새누리 “표결 강행땀 국회 파행”

사드배치 반대 당론도 변경 움직임

국민의당이 전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야권 공조를 파기한 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조 파기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애초 선명성을 내세우며 야권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해왔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상대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21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사드 배치

결정)를 꺼내고 나서 불과 우리가 3, 4일 만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놀랐다”며 “성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핵실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더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게 사실”이라며 사드배치 당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야권 공조마저 깨고 나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우클릭’ 행보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물론, 국민의당은 이번 해임안 공조 균열은 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에 대한 야권 공조가 깨진 데 대해

더민주는 22일 해임안 제출과 관련 야권 공조를 깬 국민의당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표결 강행 시 정국회 파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야권 공조가 균열돼 유감”이라며 “야권공조는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으로, 이렇게 균열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야당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타이밍이 늦었고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냈는데 해임건의안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 복핵 문제, 지진 문제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어제 오후 두 야당 대표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든 당원에 투표권”

“당비 낸 권리당원만”

국민의당 소당원투표제 논란

국민의당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당직 선거에서의 전(全)당원투표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에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과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르면 발리주는 중이당원이 양산될 수 있고 당의 토대인 권리당원의 소속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2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당원투표제가 당직 선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반대 논리의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권리당원 폐지를 혁신안으로 밀고 있는 당의 기조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당의 혁신안이 현역 의원들에 의해 변경된다면 오히려 국민의당에 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朴대통령 “비방과 폭로성 발언 혼란 가중”

미르재단 의혹 일축... 위기 극복 국민 단결·정치권 합심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씨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야권과 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스스로 분열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께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까지 발생해 불안감도 크셨을 것이고 국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일간지가 박 대통령의 지난 20일 경주 지진피해 현장 방문 사진을 실으면서 마치 박 대통령이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 멀리서 손을 뻗어 주민과 악수하는 것처럼 설명을 붙여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운암동 111-1번지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